

화순군, 내년도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30억 지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등 적극 추진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군민 건강보호 이바지

화순군은 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30억여 원을 지원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환경 개선 시책을 적극

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군은 확보한 국·도비 18억 원과 군비 12억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 사업,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을 지원한다.

주요 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8억8000만 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2억8000만 원 ▲전기자동차(승용·화물·이륜) 구매 지원 사업 등 8억1600만

원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4억9400만 원 ▲어린이 통학차 LPG 전환 지원 사업 7500만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 3억3000만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사업 400만 원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사업 1억3000만 원 등이다.

대기환경 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군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2021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나주시 일자리위원회

워크숍 우수사례 발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

나주시는 10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에서 주최하는 제3회 전국 일자리위원회 워크숍에서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서울 코엑스 행사장에서 열린 이날 워크숍에는 전국의 각 기관에서 제출한 총 102개의 일자리 사례 중 최우수 성과를 낸 6개 사례(지자체 2개, 공공기관 2개, 민간기업 2개)가 선정됐다.

이번 워크숍 성과 사례 발표기관 중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나주시가 유일하다.

나주시는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지역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통한 인력 양성에서 취업까지 연계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들은 내달 중 대한민국 일자리 유공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워크숍 행사에는 강인규 나주시장을 비롯해 6개 기관장 및 관계자가 현장에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326개 기관이 화상회의 또는 유튜브 생중계로 참여했다.

발표자로 나선 강동렬 일자리경제과장은 △원도심·혁신도시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일자리 창출 △버스운전자 양성을 통한 지역버스업체와 청장년 구직자 수요 충족 △배전기능 인력 등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을 통한 혁신도시 에너지밸리 인력수요 대응 △산학연 협력-인재양성-취업 단계별 직업훈련 및 교육체계 구축 △일자리지원센터 맞춤형 취업 연계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일자리정책 및 일자리 창출 극대화 등 다양한 성과 사례를 소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나주시의 우수한 일자리 정책을 전국에 알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리 시 환경과 산업 여건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창업 선순환 체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구례군, 이재민 임시주택 부실시공 업체에 보완 지시

임시주택 판넬 열관류율 등 기준 범위 미적합 확인

구례군은 2일부터 6일까지의 이재민 임시주택 전수조사를 끝내고 9일 시공업체에 보강시공을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로 발생한 이재민들에게 공급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 규격미달 자재로 시공되었다는 내용이 10월 29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에 구례군은 11월 2일부터 2개 업체가 제작한 임시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전수조사 결과 조립주택의 일부 L형강이 규격에 미달되고 판넬의 열관류율이 기준 범위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구례군은 해당 업체에 단열 성능이 기준범위에 적합하도록 12월 6일까지 보완시공을 마칠 것을 9일 지시했다.

구례군 관계자는 "추석명절 이전까지 공사기간을 앞당겨 이재민을 입주시키는 것이 불편을 줄여드리는 방안이라 생각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아무리 바쁜 상황일지라도 꼼꼼히 확인했어



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시공을 통해 이재민들

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기자



담양 봉산면, '봉산사랑 누정길 걷기여행' 성료

담양군 봉산면은 지난 10일 양지리 누정길(쌍교-양지교)에서 열린 제1회 봉산사랑 누정길 걷기여행이 화창한 날씨 속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회장 정종갑)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전국의 모든 걷기 행사가 취소되는 상황 속에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거리유지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행사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사를 주최한 정종갑 봉산면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과 방문객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년에

걸쳐 누정길을 조성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슬기롭게 대처하자는 의미에서 걷기 행사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날 누정길 걷기여행과 더불어 사진전시회도 열렸다. 옛날 생활사진, 리마인드 웨딩사진, 그리고 봉산초등학교의 지역신문 공모전 수상작품도 함께 전시되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민지 봉산면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는 주최측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곡성군, 농업인 위한 편의시설 '눈길'

농업인회관·농업기계 운전·실습 교육장 개장

곡성군은 지난 1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군수와 군의회 의장 및 의원, 농업인단체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인 농업인회관과 농업기계 운전·실습교육장을 개장해 눈길을 끌었다.

농업인회관은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농업인단체 대표들과 3차례의 협의회를 거쳐 운영효율성 등을 감안해

농업기술센터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난 5월부터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한 결과 이날 개장했다. 농업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쉼터 공간과 소규모 열린 회의 공간으로 구성되었으며, 농업인 단체 활성화를 위한 단체 업무협약과 농업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업기계 운전·실습 교육장은 농촌진흥청 국비 예산 6억원을 확보해 농기계임대사업장 옆 부지에 비가림 실습장 2동과 교육생 대기실 1동을 신축하고, 트랙터의 10종 13대의 실습 교육용 농업기계 구입도 완료했다.

곡성=양해영기자

아이들 밥상에 '장성 친환경 로컬푸드' 올린다

농업인의 날 맞아 '로컬푸드 급식데이' 행사 열어

장성군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지역 내 교육시설 53개소에서 '로컬푸드 급식데이' 행사를 가졌다.

성 유기농쌀로 만든 가래떡과 꿀, 사인머스켓 등이 급식에 제공됐다. 행사에는 유두석 장성군수와 최미

숙 장성군 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영성 장성중앙초등학교 교장, 조상명 농협 장성군지부장이 참석해 배식 과정을 함께 했다.

유두석 군수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지역 식재료의 우수성을 알리

기 위한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히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농가 소득 창출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친환경 및 비(非)유전자변형 농산물(Non-GMO),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등을 학교 급식에 제공하고 있다. 유기농쌀, 감자, 깻잎, 대파, 토마토 등 장성에서 생산된 22개 품목의 친환경 식재료가 아이들 밥상에 오른다.

기동취재본부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 에어컨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